

총파업 결의문

촛불민심의 뜨거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끝내 고시를 강행,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대국민선전포고를 감행하였다. 우리는 국민을 배신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오늘 총파업을 선언한다. 우리 80만 조합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참하게 유린한 이명박정부의 범죄를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의 총파업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투쟁이다. 우리의 총파업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독재를 청산하는 투쟁이다. 우리의 총파업은 국민의 부름에 따르는 국민 파업이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의 총파업은 이명박정부의 어떠한 음해와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천천히 일어난 우리 노동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국민의 가슴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명박의 기만과 독선에 파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거짓으로 꾸며낸 반성 따윈 집어치워야 한다. 경찰의 물대포와 방패에 의존하여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파산정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7%로 곤두박질 친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오늘 강행한 고시는 무효다.

국민을 외면하고 공권력의 폭력에만 의존한 권력에게는 5년이 아닌 단 1년도 허락할 수 없음을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오기를 부리는 한 우리의 총파업은 하루하루 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역사적인 촛불의 바다가 80만 조합원의 총파업 불길과 뜨겁게 만난 국민의 촛불항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민이 지켜든 촛불항쟁에 모든 조합원이 적극 참여하고,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광우병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주권을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광우병쇠고기협상 고시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 한반도대운하 반대 /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 언론 시장화, 사유화 정책 폐기 /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를 공동요구로 내걸고, 오늘 총파업을 선포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총파업을 왜곡하고 탄압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협상을 쟁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 낼 것이다.

2008. 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